

저축 어록

돈을 저축하면
꿈도 저축된다



SBI저축은행 웹진형 매거진
Spring 2017 Vol. 13

SBI 포커스

방방곡곡 후끈후끈! SBI 사회공헌활동

부서 탐방

기업여신심사부

달콤한 나의 가족

CSS부 금화진 대리 가족의 야구장 나들이





희망편지

4월 들녘에 피어난 민들레를 바라봅니다.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꽃처럼 우아하지 않아도
자기 빛깔과 향기로 가만히 피어올라
주변 들뜰까지 모두 다 봄의 주체로 환하게 밝혀주는
민들레의 너너함을 닮고 싶습니다.

피는 꽃마다 아름답고, 살아 있는 것마다 빛나는 봄.
숨털 같은 씨앗 하나 가슴에 품고
바람 타고 두둥실 날아올라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희망+

SBI저축은행 웹진형 매거진
Spring 2017 Vol.13

- 04 **이 계절, 이 그림**
명화가 속삭이는 봄의 메시지
- 08 **커버 스토리**
통통 튀는 매력남 손재홍입니다
- 10 **SBI 포커스**
방방곡곡 후끈후끈! SBI 사회공헌활동
- 14 **새 얼굴을 소개합니다**
정보보호팀 김진명 주임 외 12명
- 18 **부서 탐방**
기업여신심사부
- 22 **우리 동호회 최고!**
당구 동호회 '하이런'
- 26 **SBI 희망뉴스**
2017년 1분기 주요 소식
- 30 **달콤한 나의 가족**
천일 만에 다시 맛본 사랑의 홈런
: CSS부 금화진 대리 가족
- 36 **직장생활 솔루션**
잘나가는 비즈니스맨의 이메일 작성법
- 40 **추천! 핫 플레이스**
2017 강남, 젊음의 행진
- 42 **SBI 미식회**
동기들과 함께한 어느 멋진 저녁
- 46 **컬처 라운지**
2017년 봄, 심심할 틈이 없어라

<희망+>는 웹진과 함께 펴내는 SBI저축은행 계간 매거진입니다.
SBI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198호(2017. 4. 20)

발행일 2017년 4월 20일
발행인 임진구, 정진문
발행처 SBI저축은행 홍보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센터원빌딩 동관 9층
담당 SBI저축은행 홍보부 여성환 대리 Tel. 02-3416-6288
기획·편집·디자인 101디자인스튜디오 Tel. 02-548-5780

 <희망+> 웹진
<http://sbiwebzine.co.kr>



명화가 속삭이는 봄의 메시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화가들에게 봄처럼 좋은 계절이 또 있을까. 봄을 그린 그림 가운데 역사상 유명한 그림을 꼽는다면 보티첼리의 <봄>을 빼놓을 수 없다.

이 그림은 맨 오른쪽부터 봐야 한다. 올리브나무가 뺨뺨한 비너스의 동산에 서풍 제피로스가 나타났다. 유럽에서는 봄이 대서양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서풍 제피로스는 봄을 뜻한다. 제피로스가 날아채려고 하는 여인은 클로리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꽃의 여신이다. 해마다 봄에 꽃이 피는 것은 이렇듯 제피로스와 클로리스가 새롭게 신접살림을 차리기 때문이다. 클로리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꽃은 플로라 여신으로 변신한다. 꽃무늬 가득한 옷을 입은 플로라는 동산 곳곳마다 꽃을 뿌리고 있다. 이 아름다운 봄 동산의 주인인 비너스 여신이 그림 가운데서 세상을 주관한다. 맨 왼쪽의 헤르메스는 이 동산에 나쁜 기운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먹구름을 막대로 쫓아내고 있다. 공중에서는 눈을 가린 에로스(큐피드)가 춤추는 미의 세 여신에게 화살을 겨누고 있다. 사랑의 뜨거운 바람이 이 봄 동산을 곧 덮칠 것이다. 이처럼 봄은 꽃과 사랑을 불러온다.

산드로 보티첼리 <봄>
1481년 무렵, 패널에 템페라, 203×314cm, 우피치 미술관, 피렌체

봄은 사랑의 계절이자 희망의 계절이다. 희망의 씨앗은 땀과 노동이다. 미국화가 그랜트 우드가 그린 <봄이 오네>는 지루한 겨울잠에서 깨어난 땅과 부지런히 움직이는 농부의 모습을 보여준다. 드넓은 초록빛 들판과 갈색으로 갈린 땅이 마치 거대한 추상화 한 점을 보는 것 같다.

미국의 땅은 유럽과는 달리 광활하기 그지없다. 농부는 마치 개미와 같다. 저 작은 농부는 언제 저 넓은 들판을 다 갈 수 있을까? 농부는 그저 꾸준히 '미'자로 돌려 땅을 간다. 시간이 흐르면 저 들판의 초록빛은 사라지고 갈색 흙만 드러날 것이다. 물론 그 땅은 이내 다시 또 다른 초록빛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처럼 봄은 우리에게 부지런한 삶을 살라고 부드럽게 등을 떠민다.



그랜트 우드 <봄이 오네>
1936, 메소나이트에 유채, 46×102cm, 레이놀다 하우스 미국 미술관, 노스 캐롤라이나

하늘에서 사과꽃 비가 내린다. 사과 향을 담은 작은 꽃잎들이 아이의 머리 위에, 옷에 내려앉았고 더러는 부드러운 바람에 나비처럼 폴폴 날아다닌다. 꽃잎을 잡아보려 두 손을 버둥거리는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얼굴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함박웃음이다. 얼굴이 보이지는 않지만 아이도 엄마처럼 활짝 웃고 있을 것이다. 그저 바라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림이다.

봄의 절정인 5월이 되면 술한 기념일 때문이라도 한번쯤 가족을 돌아보게 된다. 나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남편과 아내를 위해 몇 번이나 꽃나무를 흔들어 보았을까? 내 주변의 사랑하는 이에게 꽃향기를 선물하는 계절, 바로 봄이다.



해밀턴 해밀턴 <사과꽃 흔들기>
캔버스에 유채, 76.2×45.7cm, 개인 소장

통통 튀는

매력남 손재홍 입니다



SBI저축은행 IB2부
손재홍 사원

2015년 1월 1일 입사. 평소 채권시장에 관심이 많아 DART 공시를 챙겨보던 청년. 스물한 살 때 경제적인 것을 포함한 완전한 독립을 하고, 이후 바텐더, 웨딩 포토그래퍼, 개인 비서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업과 생계를 이어나간 특이 경력의 소유자. 약 500여 회의 웨딩 촬영을 통해 고객을 대하는 자세(결혼식을 한 시간 앞둔 세상에서 가장 예민한 고객인 신부 만족시키기), 임기응변과 리더십(제한된 시간 안에 수백 명의 하객과 혼주를 컨트롤하고 정해진 목표 달성하기), 뷰파인더를 통해 익힌 다양한 시각(같은 예식장, 정해진 레퍼토리 안에서 계속 새로운 사진 찍기)을 배웠다.

남들이 말하는 나의 가장 큰 매력은?
오랫동안 알던 사람 같은 친화력

첫키스는 몇 살 때?
중1 때 방과후교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중학교 입학 때 아버지가 주신 향수와 손수건

신체 중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엉덩이

가장 아끼는 물건은?
가족사진 앨범

거울을 보면 딱 드는 생각은?
아빠가 딸이면 안 되는데

딱 한마디로 이성을 사로잡아야 한다면 무슨 말을?
딱, 지켜봐!

ढ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프랭크 언더우드 (<House of Card> 주인공)

텅 빈 사무실에서 외치고 싶은 말
아 인생이러난!

내가 가장 잘하는 운동은?
스노보드

최근에 가장 기쁜 일은?
전세로 이사

한달 동안 휴가를 받는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우유니 소금사막, 바타칸시티, 그레이트 밸룬 여행

취미는?
최근 시작한 골프



방방곡곡 후끈후끈!

SBI 사회공헌활동

“정부 지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이곳 아이들 중에는 부모의 방임·학대·이혼·별거 또는 베이비박스예 유기된 과거 때문에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많은데, 상담비가 수십만 원이 넘어 엄두조차 못 내죠. 보통 아이들이 흔히 가는 학원은 물론이고 생필품 비용조차 부족할 때가 많아요.” 지난 3월 25일, SBI저축은행 임직원이 찾아가 서울 성동구 소재 이든아이빌. 이곳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이진선 씨는 SBI저축은행과의 자매결연이 아동들에게 앞으로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한다.



작은 것 하나하나, 놓침 없이 꼼꼼히

이날 이든아이빌에는 이른 시각부터 푸른 봉사단 티셔츠를 입은 SBI저축은행 희망나눔봉사단이 모여들었다. 먼저 11명의 봉사단은 이든아이빌이 어떤 곳인지 설명을 들었다. 이든아이빌은 고아나 서울시에서 보육을 결정한 아이들을 양육하는 곳으로, 옛 이름은 화성영아원이다. 복지시설 느낌이 나는 이름 때문에 학교에서 가정환경조사를 할 때 상처 받는 아이들이 많아, ‘착하고 어질다’를 뜻하는 순수 우리말 ‘이든’을 활용해 이름을 바꿨다고 한다. 봉사단은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앞서 주의사항을 진지하게 경청했다. 이든아이빌 이진선 씨는 “2, 3층의 프로그램실과 휴게실의 청소와 정리를 맡아 주세요.”라며, 아이들이 직접 사용하는 펜과 색연필, 지우개 같은 문구류 중에는 손상된 상태 그대로 섞여 있는 경우가 많으니 꼼꼼하게 정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봉사단은 두 팀으로 나누어 봉사활동에 들어갔다. 2층의 프로그램실은 영어책, DVD, 파스텔, 스케치북, 바둑판, 크레파스, 연필

등이 뒤섞여 있었다. 봉사단은 문구용품을 일일이 꺼내어 분류하고, 나오지 않는 펜이나 굳어진 찰흙, 이가 빠진 물품 등을 꼼꼼히 체크했다. 창틀을 닦아 먼지를 제거하고 필라멘트가 나간 형광등을 교체하기도 했다. 3층 휴게실에는 아이클레이·패턴 블록·데코 찌기 놀이 등 다양한 물건이 뒤섞여 있었다. 봉사단은 이를 일일이 열어보며 아동들이 사용했을 때 어려운 점은 없는지, 손을 베이는 등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지 의논하며 꼼꼼히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전국에서 동시 진행된 SBI 사회공헌활동

봉사단은 이든아이빌과 자매결연을 맺고 기부금도 건넸다. 이든아이빌에서는 이를 아이들이 사용할 의자를 구매하는 데 일부 사용했다. 이진선 씨는 “여러 아이가 사용하는 물품은 쉽게 망가집니다. 책상이 기울고, 의자 바퀴가 빠지고, 철제가 구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튼튼한 의자를 샀으니 아이들의 생활환경이 더 안전





이른아이빌 방문은 이날 SBI희망나눔봉사단이 진행한 봉사활동의 일부였다. 이날 SBI희망나눔봉사단은 전국에서 동시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전체 18개 조로 편성하여 서울, 수원,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등의 아동복지시설에 찾아가 봉사활동을 펼쳤다.

해졌어요.”라며, 앞으로도 기부금으로 아동들의 처우를 개선할 것임을 알렸다. 이른아이빌 방문은 이날 SBI희망나눔봉사단이 진행한 봉사활동의 일부였다. 이날 SBI희망나눔봉사단은 전국에서 동시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전체 18개 조로 편성하여 서울, 수원,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등의 아동복지시설에 찾아가 봉사활동을 펼쳤다. 테마는 노력봉사, 문화봉사, 상담봉사의 3가지. 임진구 대표이사과 정진문 대표이사를 포함한 500여 명의 임직원들은 각자가 찾아가 지역아동복지시설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따뜻한 인연을 맺었다.

한 뼨씩 꾸준히 자라는 희망 나무

SBI저축은행희망나눔봉사단은 일회성 봉사에 그치지 않는다. 이번 3월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한 봉사를 기점으로 6월, 9월, 12월로 사회공헌활동을 쉬지 않고 이어간다. 저소득가정이나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이웃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 중에서도 소년소녀가장을 후원하거나 아동복지시설과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타의에 의해 가난을 대물림 당해 지원이 시급한 아동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임진구 대표이사의 강한 의지에서 비롯됐다.

2013년 출범 이후 사회공헌활동 의지를 지속하여 천명해왔던 SBI저축은행. 2015년 흑자 기업으로 전환한 뒤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를 보호하는 울타리 짓기를 시작했다. 2015년 11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천만 원을 기부했고, 복지시설 자매결연, 사내 봉사단 운영, 1사 1교 금융교육 결연, 관할구역 소년·소녀 가장 후원, 희망 나눔 봉사대축제 등 점차 범위를 넓혀 왔다. 향후 SBI저축은행은 어린이희망재단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소외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미래의 주인이자 나라의 보배이지만 정작 국가와 사회에서의 지원은 미비한 소외계층 아동들. SBI저축은행 희망나눔봉사단이 이 아이들의 가슴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고 있다.



봄꽃처럼 찾아온 SBI 새 얼굴

- ① 나에게 SBI저축은행은?(10 글자)
- ② SBI저축은행에 입사해서 가장 좋은 점은?
- ③ 2017년 가장 큰 목표는?



총무부 김기완 사원

- ① 추운 겨울을 지나고 온 봄
- ② 취업준비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받았던 도움들을 하나하나 갚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 ③ 한강~경인 아라뱃길 자전거코스(120km) 완주, 독서 20권 이상, 신용분석사 취득, 캐나다 여행



IB2부 이병준 사원

- ① 희로애락을 함께할 친구
- ② 더 먼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 ③ 인문학 도서 26권 읽기



리테일영업2부 이미지 사원

- ① 나의 가치를 증명해갈 곳
- ② 함께 성장하고 의지할 수 있는 12명의 동기가 생겼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③ 금융자격증 취득하기



금융서비스운영부 홍석춘 사원

- ① 사이다처럼 시원한 존재
- ② 낯선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분위기
- ③ 회사에 자그마한 것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부 김재명 사원

- ① 취업을 이뤄준 금 동아줄
- ② 동호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회사생활의 활력소가 될 것 같습니다.
- ③ 회사, 사람, 업무 속에서 잘 녹아드는 신입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오토금융부 박승연 사원

- ① 함께 성장할 소울메이트
- ② 장기간의 취업준비로 저보다 더 힘들었을 어머니가 웃으시는 걸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한 업계 리더 컴퍼니 구성원이라는 자부심!
- ③ 밥값하기, 바디 프로필 사진 찍기, 해외 나가 보기, 악기 하나 배우기, 2주에 책 한 권 읽기



소호영업부 김민영 사원

- 1 나의 새로운 희망 파트너
- 2 좋은 위치, 좋은 사람들, 좋은 분위기
- 3 건강한 식습관 가지기, 쉬지 않고 성장하기



재무경리부 송명근 사원

- 1 악어새와 함께하는 악어(악어와 악어새처럼 상부상조하며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 2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가 저축은행 업계 1위 기업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는 것
- 3 내가 속한 이 곳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기업금융3부 김태현 사원

- 1 서툰 고백 받아준 첫사랑
- 2 소속감이 생겼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졸업 후 학생도 아니고 회사원도 아닌 상태였는데, 이제는 주변인이 아닌 SBI인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3 자주 칭찬받는 신입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이어트로 멋진 몸을 만들어서 사진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CSS부 홍규성 사원

- 1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곳
- 2 여러 금융 산업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어 좋습니다.
- 3 건강한 몸매 만들기, PYTHON 배우기, 중급 영어회화 마스터



전략리스크관리부 송준호 사원

- 1 함께 발전해 나갈 동반자
- 2 함께 하면 항상 즐거운 동기들, 따뜻한 선배님들
- 3 업무 전문성을 쌓아서 부서 실적에 도움이 되는 것, 새로운 취미 찾기



정보보호팀 김진명 주임

- 1 인생 전환점의 중심인 곳
- 2 하고 싶던 일을 하게 되었기에 즐겁게 일할 수 있다는 점
- 3 아무리 바빠도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 지키기!



IB부 신승준 사원

- 1 사회라는 여정의 동반자
- 2 저축은행 1위라는 자부심으로 일할 수 있고, 첫 월급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걸 사 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3 새로운 일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적극적으로 다가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BI 여신 건전성, 우리 손안에 있소이다!

기업여신심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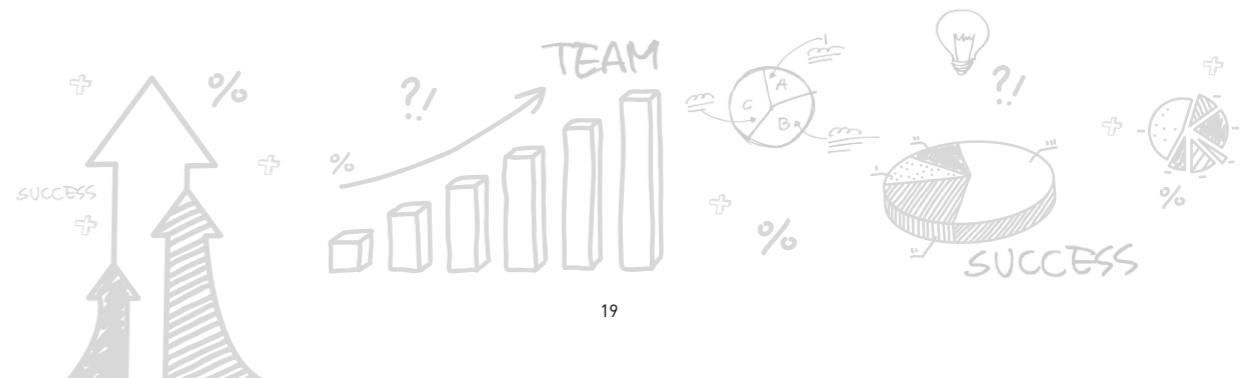
촉구에 공격과 수비가 있고 법정에 검사와 변호사가 있다면, 은행에는 영업부와 심사부가 있다. 여신자산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지키는 수레의 한쪽 바퀴로, SBI저축은행의 리스크 예방과 관리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여신심사부 사우들을 만나 보았다.

에디터 이장원 사진 모노페이지 스튜디오



영업부와 상호견제, 협력의 관계

기업여신심사부의 업무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영업부에서 영업한 기업 신용대출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다. 대출 건이 여신심사위원회에 넘어가기 전에 사전 리스크를 진단해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면, 여신심사위원들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대출의 최종 취급 여부를 결정한다. 대출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해당 대출이 안전하게 상환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여신 리스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법 감독규정보다 더 엄격한 여신 Exposure 가이드라인 운용, 기업집단별 여신 Exposure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여신 신용공여한도 관리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시장 상황이나 정책에 대해 주요 이슈가 발생할 경우, 이를 분석하여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영업부와 여신심사위원회에 제공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SBI저축은행 기업여신심사부의 인원은 총 11명으로, 안홍범 부장을 중심으로 여신 심사와 기획, 기업분석, 여신에 대한 Loan Review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저희 기업여신심사부의 모태가 되는 심사부는 SBI 출범 때부터 영업부와 건전한 상호견제와 협력의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최초 심사부는 기업 신용대출과 부동산 대출의 심사를 모두 담당하는 부서였으나, 각 대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5월 2일부터 이원화하여 기업여신심사부와 부동산여신심사부로 나눈 뒤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부실 발생 감소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

한때 저축은행의 부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그 사태의 가장 커다란 원인은 건전한 여신인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 없이 자산의 확대에만 집중한 탓이었다. 심사자의 독립적인 판단을 외면하고, 그 판단을 존중하지 않은 가운데 부실이 커지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기업여신심사부와 같은 부서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여신 건당 취급액이 거액인 점을 고려할 때 '심사'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물론 사회 전반에까지 건잡을 수 없는 불행이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업부에서 힘들게 영업한 대출을 담당자와 잘 조율해서 최종 취급까지 이루어내는 그 순간이 가장 뿌듯합니다. 반대로, 영업부에서 열정을 가지고 영업한 일에 대해 심사부에서 검토한 결과 부정적일 경우 영업부를 설득해 해당 대출을 철회하게 할 때는 마음이

무겁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노력 덕분에 최근 몇 년 동안 부실 발생이 대폭 감소된 상황입니다. 우량여신을 발굴하려는 영업부의 노력과 최선을 다한 심사부의 심사의견 개선, 그리고 여신심사위원회의 합리적 판단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여신 리딩 저축은행으로 도약

기업여신심사부는 지난 3월, 여신업무 규정집과 여신업무편람(상·하)을 5년 만에 개정 발간해 영업현장 등에 배포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에 일조하고 있다. 개인별 업무역량 강화에도 힘쓴 결과, 심사역 모두 국가공인 신용분석사(CCA)와 CPA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특별한 여신 이슈가 생기면 부서원들이 모여 자체적인 토론과 학습을 진행하고, 새로운 여신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 외부 교육과 세미나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한다. 여기에, 시중은행에서 은퇴한 전문역 네 사람의 노하우 또한 든든한 힘이 되어준다.

“과거 저축은행이 PF,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의 영업을 해왔다면, 우리 SBI는 인수금융, 메자닌 대출, 사모사채 등 다양한 기업여신을 취급하고 있어 그 난이도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개별 여신 담당자와 심사역들의 우수한 역량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며, 실제로 그 역량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일반 시중은행이나 증권사가 여신 취급을 하면, 저축은행은 단순히 그 시중은행이나 증권사의 평판을 믿고 따라가는 모양새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SBI저축은행은 지금 그 오랜 편견을 깨고 있는 중이다. 이미 업계 내에서는 기업여신의 리딩 저축은행으로 탄탄히 자리를 잡아 타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벤치마킹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도약을 뒷받침하고 있는 기업여신심사부의 앞날에 더 큰 발전이 있기를 응원한다.

Mini Interview



“연체 발생 최소화로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

기업여신심사부 안홍범 부장

기업여신심사부의 특징이나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 있지만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쌓으신 전문역님들로부터 여신심사위원회 통역업무를 담당하는 막내사원까지, 늘 즐겁고 밝은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합니다. 저희 기업여신심사부는 항상 열려 있으니 관련 업무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GWP를 원하는 부서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또 한 가지 자랑하고 싶은 점은 저희 부서가 주축이 되어 결성한 등산 동호회 '산봉우리'입니다. 나이로만 따지면 아마도 저희 부서가 전사에서 가장 평균연령이 높을 텐데, 동호회 활동 덕분에 체력만큼은 그 어느 부서보다 자신이 있습니다.

기업여신심사부의 향후 목표나 계획은?

기업여신심사부는 부동산여신심사부와 함께 올해 11.5% ETR(66억) 준수를 핵심 목표로 설정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국내 경기의 불확실성이 더 커져 달성이 쉽지 않은 목표지만 강동욱 실장님의 'Back to the basic'이라는 모토 아래 심사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영업부와 원활히 협력해 나간다면 수익 기여와 건전성 확보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랑가몰라! 당구장 자장면, 마성의 그 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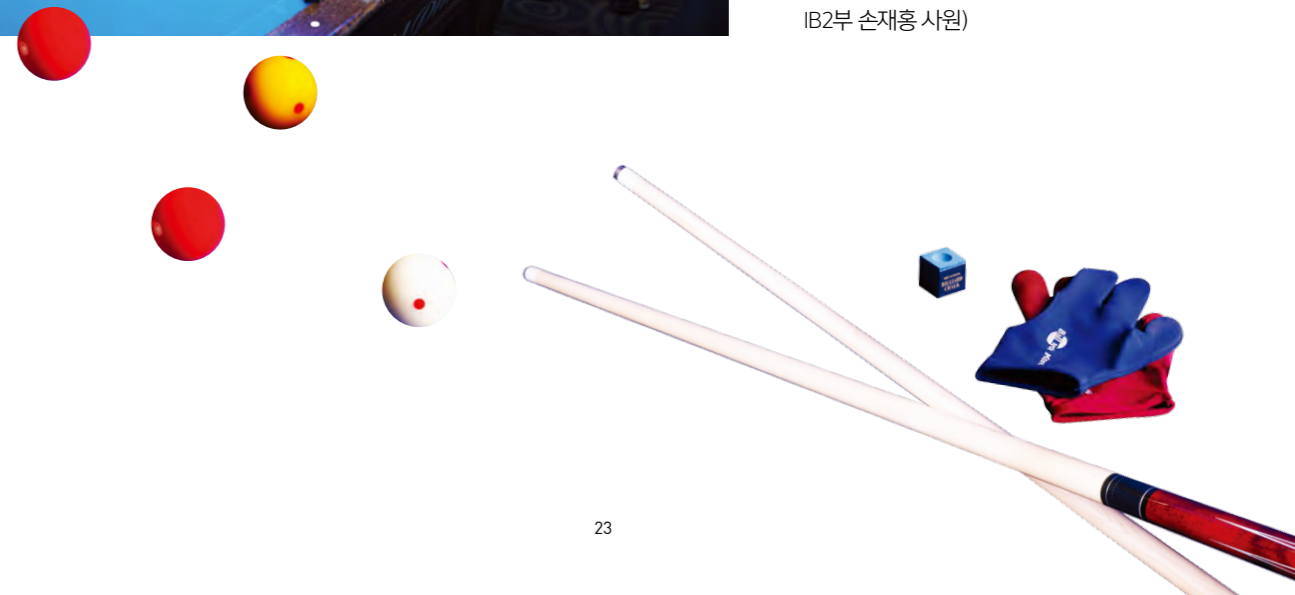
각도를 분석하고 방향을 고민한다. 큐대를 미는 힘, 당점, 두께, 속도가 조화를 이룰 때 공은 비로소 '딱' 하고 경쾌한 소리를 낸다. 옆드렸다 폼다 반복하면서 허리 운동은 물론 팔다리 근육까지 강화할 수 있는 전신운동이자 집중력과 지구력을 키울 수 있는 최적의 스포츠. SBI저축은행 동호회 탐방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그 당구를 즐기는 '하이런' 멤버들이다.



실력은 달라도 열정은 하나

4월을 코앞에 둔 어느 날 '하이런' 멤버들이 모인 곳은 본사와 가까운 곳에 자리한 당구장. 과거 한때 당구장은 한량들이 모여 시간을 때우는 곳으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오늘날의 당구는 더 이상 우중충하고 불량스러운 오락으로 대접받지 않는다. 당구는 이미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현재 국내에서 1200만 명이 넘는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는 인기 스포츠. 여기에 '당구여신' 차유람, 자넷 리, 김가영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의 활약으로 여성들의 참여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이런은 당구 게임에서 한 큐에 친 최고 점수를 뜻하는 말입니다. 회원들 모두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하이런 기록을 세웠으면 하는 뜻에서 지은 이름이죠. 저처럼 이제 갓 100점을 넘보는 사람에서부터 400점을 치는 고수까지 수준은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당구에 대한 열정 하나만큼은 그 어떤 아마추어 동호회 회원들과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을 거라 자부합니다." (하이런 총무, IB2부 손재홍 사원)



'하이런' 최고수 권용덕 팀장이 알려주는 당구 노하우

① 당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

어떤 위치에서도 흔들림 없는 편안한 자세를 유지한다.

② 스윙은 일정하게!

큐는 항상 수평으로 움직이고, 옆구리와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③ 홀딩은 가볍게!

홀딩이란 큐를 쥐는 손을 뜻한다. 너무 꽉 쥐거나 세게 치지 않는다.

④ 스트로크 기술을 익히자!

'큐 무게만을 이용한 스트로크'가 좋은 스트로크의 출발이다. 이론보다는 꾸준한 연습으로 팔에 감각을 익힌다.

⑤ 서로 격려하자!

당구를 치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동료들과도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 샷에 실패해도 실망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즐기자.

당구도 배우고 선배들도 사귀고

현재 하이런의 회원 수는 총 27명으로, 이날 모인 회원은 이중 17명. 카카오톡 단체방 투표를 통해 매달 한 번 날짜를 정해 정기모임 겸 자체 당구대회를 개최한다. 3구와 4구 우승자에게 각각 '개인 큐'를 증정한다. 한번 우승한 회원은 이후 대회에 참가자격만 있을 뿐 우승은 할 수 없다. 승부가 아닌 즐기는 자리를 만들고, 시간이 흐르면 동호회원 전부 개인 큐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날 대회는 3구와 4구 2종목으로 나누어 각각 3테이블에서 진행되었다. 하수와 고수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골고루 배치해 자연스럽게 자세와 기술을 서로 보고 배울 수 있는 분위기. 얼굴만 알고 지내던



타 부서 선배들과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는 건 덤이다. "당구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특히 기본자세가 매우 중요해요. 스탠스(발의 위치와 무게중심), 폼(자세), 그립(잡기), 브릿지(큐를 받치기 위해 대는 손 모양), 스트로크(큐를 내미는 동작)를 정확히 파악해야 기술이 향상됩니다. 하이런에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하이런 최고수, 정보보호팀 권용덕 팀장)

우승을 축하합니다!

퇴근 후 곧바로 당구장으로 모인 이들이 슬슬 출출해질 시간, 바로 이때 마성의 '당구장표 자장면'이 등장한다. 자장면은 뭐니 뭐니 해도 당구장에서 순서를 기다리며 한 젓가락씩 먹는 것이 제맛! 순식간에 사라진 자장면 그릇들을 뒤로 하고, 마침내 3구와 4구 결승전이 열렸다. 치열한 승부 끝에 탄생한 3월의 우승자는 정보보호팀 권용덕 부장(3구)과 부동산심사부 김덕선 과장(4구). 당구지수 400점의 권용덕 부장은 자타공인 '하이런' 동호회 최고수이지만 우승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4구 우승자인 김덕선 과장 또한 10년이 넘는 구력에 당구지수 300점을 보유하고 있는 고수 중 한 명.

"하이런은 SBI저축은행 사내 모든 동호회를 통틀어 가장 다양한 부서와 직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주를 하지 않고도 사내 여러 부서 선배들과 친해질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여기에 신사의 스포츠인 당구를 배우고 익힐 수 있으니 그야말로 썩 먹고 알 먹고 아니겠습니까?" (4구 우승자, 부동산여신심사부 김덕선 과장)

'하이런'에 가입하려면?

총무 손재홍 사원(IB2부)에게 연락하세요.

전화 02-3415-4185

이메일 NiftyFifty@sbisb.co.kr





**2017 이데일리 대한민국 금융산업대상
서민금융진흥원장상 수상**

SBI저축은행이 '2017 이데일리 대한민국 금융산업대상'에서 서민금융진흥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1월 25일 서울 중구 소공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금융산업대상'은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시상식으로, 금융산업 발전 기여도와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 등을 기준으로 각 금융사의 히트 상품과 금융서비스에 대한 종합 평가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금융계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올해 처음 신설된 '서민금융진흥원장상'을 수상한 SBI저축은행은 히트상품 '사이다'로 최근 금융당국의 주요 과제인 중금리 시장을 선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면 바로 대부업 금리에 가까운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아야 하는 '금리 단층' 현상을 해소하며 중금리 시장에서 금융소비자를 위한 바람직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오재인 심사위원장은 "중금리 시장에서 독보적인 실적을 기록하며 금융소비자의 고금리 이자부담을 낮춰주고 저축은행 업계의 이미지 개선에도 이바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1회 저축은행 우수영업인상 수상

SBI저축은행 사이다영업부 최인호 과장이 제1회 저축은행 우수영업인 가계대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저축은행중앙회가 서민과 중소기업 등의 지원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저축은행 직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행사로, 영업 일선에서 서민과 중소기업에 직접 접촉하는 직원 위주로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대상을 비롯한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영업챔피언', '명장'이라는 인증과 중앙회장이 수상자를 소개하는 동영상에 연결된 QR코드를 제공해 명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인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영업 최일선에서 사명감과 열정을 다하고 있는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이번 시상식이 그간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히 서민금융 지원과 발전을 위해 노력한 임직원들에게 자긍심과 보람을 고취하는 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핀테크 기업 (주)비바리퍼블리카와
MOU 체결**

SBI저축은행은 2월 15일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TOSS)를 운영하고 있는 (주)비바리퍼블리카와 핀테크 사업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SBI저축은행은 (주)비바리퍼블리카와의 업무 제휴를 통해 핀테크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플랫폼과 서비스 개발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BI저축은행의 금융서비스 노하우와 비바리퍼블리카의 핀테크 기술력을 바탕으로 효율 개선과 비용 절감 등을 실현해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신성장 동력의 기회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2015년 2월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없이 간편하게 계좌 이체를 할 수 있는 서비스 '토스(TOSS)'를 출시한 핀테크 기업으로, 토스(TOSS)는 서비스 출시 2년 만에 누적 송금액 3조원을 달성하며, 간편송금 분야에서 독보적인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SBI저축은행 정진문 대표이사는 "올해 핀테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해 고객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등 업계를 선도하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습니다.



**'2017 대한민국 브랜드스타'
저축은행 부문 1위 선정**

SBI저축은행이 '2017 대한민국 브랜드스타'에서 저축은행 브랜드 가치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브랜드스타는 국내 산업 주요 부문별 브랜드 가치 1위를 발표하는 브랜드 가치 평가 인증제도로, 브랜드 가치 평가회사인 브랜드스타(www.brandstock.co.kr)의 BSTI(Brand Stock Top Index)를 바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브랜드스타 브랜드증권시장에 상장된 230여개 품목의 1천여 브랜드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SBI저축은행은 올해를 핀테크 집중 육성의 해로 선정하고 '핀테크TFT' 조직 신설과 전문가 영입을 통해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빅데이터 분석 등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모든 사업영역에서 프로세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브랜드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새 TV CF
'대한민국 중금리' 편 론칭**

SBI저축은행이 중금리대출 상품인 'SBI중금리바빌론' 출시와 함께 새로운 TV광고를 론칭했습니다. 새롭게 선보인 TV 광고는 '중금리, 대한민국 1등 저축은행과 만나다'라는 콘셉트로,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에 실재하는 마을 이름인 '중금리(中金里)'가 SBI저축은행의 새로운 대출 상품인 '중금리(中金利)'와 동음인 점에 착안해 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SBI저축은행 TV 광고는 여타 대출광고와는 차별화된 소재와 표현기법을 통해 완성도와 참신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SBI저축은행 홍보 관계자는 "많은 대출광고가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청자들에게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광고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번 중금리 상품은 고객들의 이자부담까지 크게 낮춘 좋은 상품이어서 광고에 대한 시청자의 높은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7 경영전략회의 개최,
'소통·디테일·셀프리더십' 경영에 박차**

SBI저축은행이 4월 12일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임진구 대표이사와 정진문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국 임원, 부서장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2017년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SBI저축은행은 국내 1등 서민금융기관이 되기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을 선포하고, 개인 및 기업금융 등 부문별 주요사업 계획 발표를 통해 경영전략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전사적으로 공유했습니다. FY17 경영전략으로 ▲ 리스크 관리 강화 ▲ 자산의 질적 개선 도모 ▲ 핀테크 활용 금융 개선 등을 선포하며 차별적 경영전략을 실행해 나갈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2017년 3월말 자산 5조 5천억 달성, 1분기 당기순이익 실현 등 올해 초의 재무적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효율성 제고와 업무혁신을 통한 흑자기조 유지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전사적인 노력을 동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천일 만에 다시 맛본 사랑의 홈런

CSS부 금화진 대리 가족의 야구장 나들이

연애 시절부터 결혼 초기까지, 두 사람의 단골 데이트 코스는 야구장이었다. 어릴 때부터 열렬한 LG트윈스 팬이었던 남편을 따라 아내도 '핀스트라이프' 유니폼을 입고 '신바람 야구'에 폭 빠져들었다. 시즌 개막부터 끝까지 거의 모든 주말은 야구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애정을 키웠다. 하지만 3년 전 첫딸 세아가 태어나면서부터 야구장은 두 사람에게 가깝지만 먼 곳이 되었다. 언제 다시 야구장에 가서 마음껏 소리치며 응원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던 작은 소원이 마침내 오늘 이루어졌다.

꿈에 그리던 3년 만의 야구장 나들이

벚꽃이 한창인 4월의 어느 화창한 주말, 산뜻한 줄무늬 야구 유니폼으로 맞춰 입은 세 식구가 서울 잠실야구장 앞에 나타났다. 경기 전부터 들쭉날쭉한 야구장 바깥 분위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세 식구의 얼굴은 특이나 상기된 표정이다.

“그동안 얼마나 야구장에 오고 싶었는지 몰라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자주 오던 야구장인데, 세아를 임신하고부터 지금까지 3년간은 얼씬도 해보질 못했으니까요. 너무 흥분되고 떨립니다.”

2009년에 입사해 이병킹전략연구소 시절부터 지금까지 쪽 CSS부를 지키고 있는 금화진 대리는 오늘 3년 만의 야구장 나들이가 꿈인지 생사인지 모를 만큼 감격스럽다. 푸른 하늘 아래에서 사람들과 함께 목청껏 외치던 함성, 흥미진진한 야구경기에 맛있는 먹을거리까지, 세아를 낳기 전 야구장에서 남편과 함께 쌓은 추억은 언제나 그리웠고 언젠가는 아이와도 함께하고 싶었다. 그렇게 버르고 기다려온 날이 바로 오늘이다.

“남편이 운동을 아주 좋아해요. 야구도 남편 때문에 보게 되었어요. 남편은 뽀속 깊이까지 LG트윈스 팬인데, 선수들 중에서는 박용택 선수를 아주 좋아해요. 봄부터 가을까지는 야구장에서, 겨울에는 스키장에서 보드를 타며 데이트를 했죠. 남편은 골프도 좋아

해서 KPGA도 무척 즐겨 봅니다. 특히 저희 SBI저축은행 후원 선수인 허윤경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는 하나도 빼먹지 않고 열심히 챙겨보는 열혈 팬이에요.”

야구장에서 쌓은 천생연분

금화진 대리와 남편 이영호 씨는 지난 2012년에 결혼한 5년차 부부. 2009년 금화진 대리 친구의 결혼식 파티에서 처음 만나 4년간 교제 후 결혼해 2015년 첫딸 세아를 낳았다.

“막연히 다정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늘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키 크고 다정한 사람이 진짜로 제 앞에 딱 나타났어요. 한창 연애하고 있던 중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슬며시 나가더니 갑자기 꽃과 반지를 들고 나타났지 뭐예요.”

남편 이영호 씨는 금화진 대리의 순수하고 착한 성품에 반해 프로포즈를 결심했다고 털어놓는다.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금화진 대리의 얼굴이 웃고 있으면서도 뭔가 살짝 서운한 표정이다. ‘순수하고 착한 성품에 얼굴까지 예뻐서 한눈에 반했다’고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었을까?

“저보다도 남편이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도무



“야구장에서 음악이 나오면
아마 덩실덩실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출 거예요.
걷기 시작한 이후로는
오늘처럼 바깥으로 외출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야구장에 와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걸 보니
저희 딸 맞는 것 같네요.”



지 거짓말을 못하니까요. 하하.”

잠깐 동안의 투정 아닌 투정에도 알콩달콩한 애정이 듬뿍 느껴지는 두 사람. 이들 부부의 고운 성품을 속 빼닮은 20개월 된 딸 세아는 난생 처음 찾은 야구장 분위기가 시끄러울 만도 한데 연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호기심을 폭발시킨다.

“저희 딸 세아는 음악을 좋아해요. 야구장에서 음악이 나오면 아마 덩실덩실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출 거예요. 걷기 시작한 이후로는 오늘처럼 바깥으로 외출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야구장에 와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걸 보니 저희 딸 맞는 것 같네요.”

꿀맛 같은 승리, 두 배로 큰 즐거움

오늘 세 식구가 관람할 경기는 잠실야구장에서 펼쳐지는 홈팀 LG트윈스와 원정팀 KT위즈의 시즌 3차전. 엄마 아빠는 물론 어린 딸 세아까지 한 목소리로 응원하는 팀은 당연히 LG트윈스다. SBI저축은행 사내 이벤트를 통해 홈팀 테이블석 티켓을 제공받아 오늘 나들이를 오게 되었다.



경기장 밖에서 사온 과일주스와 응원도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잠시 숨을 돌리려는 찰라, 갑자기 경기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져 나온다. 1회초에 먼저 2점을 빼앗겼던 LG트윈스가 1회말 반격에서 선두타자 이형종 선수가 안타로 출루한 것. 인터뷰와 사진촬영은 어느새 뒷전이고 세 식구의 눈은 온통 그라운드에 쏠려 있다. 남편이 좋아하는 박용택 선수의 안타로 만들어진 1사 1, 3루의 찬스에서 LG트윈스의 공격이 폭발했다. 루이스 히메네스-채은성-이병규-정성훈 선수가 연속 4안타를 뽑아내며 KT 선발투수 주권을 초토화시켰다. 점수는 어느새 5-2로 역전된 상황. 그 덕분에 아빠도 엄마도 아이도 연신 싱글벙글, 응원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상대팀 KT위즈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5회 1사 후 유격수 실책과 안타를 묶어 1점을 따라 붙었다. 이윽고 이날 경기의 하이라이트인 경기 후반. LG의 4번타자 히메네스가 6회말 상대 추

격에 찬물을 끼얹는 솔로 홈런을 날리며 잃었던 점수를 되찾았다. 히메네스 선수는 7회초 KT가 다시 3점차로 따라 붙자 8회말에 빼기 3점 홈런까지 날리며 경기장을 뒤흔들었다. 이를 바라보는 금화진 대리 부부는 그야말로 감격과 무아지경의 얼굴. 야구경기 규칙을 알 리 없는 세아까지도 덩달아 신이 나 연신 응원봉을 흔들며 댄스. 결국 이날 경기는 12-5로 홈팀 LG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남편과 둘이서만 오다가 아이를 데리고 셋이 야구장에 오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랜만의 직관 경기를 고맙게도 LG가 시원하게 이겨 줘서 기분이 두 배로 좋았어요. 세아가 아직 어려서 유모차를 비롯해 이것저것 챙겨야 할 짐이 많은데, 회사에서 제공해주신 테이블석이 공간도 여유롭고 편안해서 더욱 경기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추억을 선물해주신 회사에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사진 많이 찍어주신 사보팀에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야구선수도 모르는 야구장 나들이 2배 즐기는 법

관람 목적에 맞는 자리 예매

프로야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빅게임의 경우 표를 구하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다.

적어도 4~5일 전에는 예매를 하는 것이 좋다. 야구도 재미있지만 흥겨운 응원을 즐기고 싶다면 내야 응원단 앞좌석을 예매하자.

대부분 1루 쪽은 홈팀, 3루 쪽엔 원정팀 응원석이 있다. 경기에만 집중하고 싶다면 포수 뒤쪽 좌석이 좋고, 선수와 같은 눈높이에서 좀 더 생생하게 경기를 구경하고 싶다면 그라운드와 가장 가까운 '익사이팅존'이 제격이다. '야구 좀 안다' 하는 사람은 1루와 3루 내·외야 경계 근처 좌석을 골라볼 만하다. 투수의 투구 궤적이 가장 잘 보이기 때문에 경기 몰입감이 훨씬 더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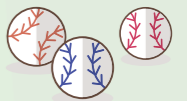
외야석은 특별히 응원팀과 상관없이 앉을 수 있다. 지정좌석이 아니기 때문에 꼭 들어차서 날이 많지 않아 조용조용 응원하기 안성맞춤이다. **운이 좋으면 홈런 볼을 주을 수도 있다.** 경기장에 따라 이색적인 좌석도 있다. 의자 앞 긴 책상에 음식이나 소지품을 편안하게 올려놓을 수 있는 테이블석, 불판과 조리도구를 가져가 고기를 구워먹으며 관람할 수 있는 바비큐존, 의자 없이 넓은 잔디밭에 앉아 관람하는 그린존, 실내에서 맥주를 마시며 관람하는 스포츠펍 등 다양한 좌석이 있다. 이 밖에 놀이방, 수유실, 키즈존, 풀장 등 아이와 함께 오는 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꼭 챙겨야 할 야구장 준비물

글러브, 얇은 외투, 음료수, 응원풍선 같은 것들이 기본 준비물이다. 글러브는 타자가 친 공이 빠르게 관중석으로 날아들 때 보호용으로 필요하다. 익사이팅존으로 간다면 머리를 보호해 헬멧도 필요하다. **대개 구단 부스에 신분증을 맡기면 글러브와 헬멧을 대여해 준다.** 평일 프로야구는 보통 오후 6시 반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5~6월까지도 경기 시간이 늦어질 경우 제법 쌀쌀할 때가 많다. **얇은 외투나 담요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주말 낮 경기에 갈 경우에는 선크림을 꼼꼼하게 바르고 모자나 선글라스를 준비해 햇빛을 막는다.

먹을수록 꿀맛! 야구장 먹을거리

야구장에서 먹는 재미를 빼놓으면 허전하다. 온갖 브랜드의 치킨은 물론 햄버거, 떡볶이, 김밥, 굽창, 피자까지 그야말로 없는 게 없다. **여기에 경기장 안에서 '맥주보이'가 파는 생맥주 한잔을 곁들이면 금상첨화.** 하지만 대부분 야구장에서 파는 먹을거리들은 밖에 있는 매장보다 비싼 편이다. 입장 전 야구장 근처에서 입맛에 맞는 먹을거리를 사서 들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다만 캔이나 병, 1리터가 넘는 페트병은 야구장 안전을 위해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니 주의하자.** 소지품은 가방 1개와 쇼핑백류 1개로 제한되어 있다.



잘나가는 비즈니스맨의 이메일 작성법

요즘은 초등학교생부터 칠순이 훌쩍 넘은 어르신까지 이메일을 사용한다.
많은 회사들이 사내에 메일 서버를 구축해 자체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메일로 소통하고, 결재를 올리고, 업무의 피드백을 받는다.
외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이메일은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잘 써서 칭찬받기는 힘들어도, 잘못 쓰면 상대방에게 혼란과 불신을 주기 쉬운 이메일.
잘나가는 비즈니스맨은 어떤 원칙으로 이메일을 쓰고 있을까?

잘못을 인정하는 메일은 가능한 즉시 보내라

상사나 선배에게 질책 메일을 받을 때가 있다. 참조 메일로 관련자 전원에게 공개되는 상황에서 이런 메일을 받기라도 한다면 더욱욱 기분이 우울해진다.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솟구쳐서 마음을 다스리는 데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공공대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는다.

이럴 때 가장 큰 실수는 실제 변명하는 메일을 답장으로 보내는 것이다. 대개 이런 경우 다음번에는 더 긴 질책 메일이 돌아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요주의 인물'로 상사의 가슴속 한편에 고이 간직될 확률이 크다.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빨리, 쿨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메일을 확인한 즉시 '의견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낸다.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고개를 들기 전에 '즉시' 답장을 보내는 것이 포인트다.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면 이런 후배가 오히려 믿음직스럽다.

상황별 정형화된 문장을 사용하라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업무 속에서 메일 하나하나마다 독창적인 말을 창작하기란 너무 번거롭다. 비즈니스는 대개 비슷한 유형과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패턴별로 업무 예절 문장을 정형화해 두면 큰 도움이 된다.

- ① 내가 보낸 메일에 하루 안에 답신을 받았을 경우: 이를테면, 거래처에 내용 확인을 의뢰했더니 하루 안에 답변을 해준 경우, 정형문은 '빨리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이다.
- ② 바쁜 상대방부터 답신을 받았을 경우: 늦게까지 야근한 상사나 거래처로부터 메일 답신을 받았을 경우 '많이 바쁘실 텐데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답한다.
- ③ 후배가 결과물을 보냈지만 바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오늘 저녁까지 볼 수 없으니



그 사이에 한 번 더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해서 다시 보내도 된다는 뜻을 명령조가 되지 않도록 넉넉히 전한다. 정형문은 '빨리 보내줬는데 미안하지만 오후에 회의가 있으니 오늘 저녁에 확인할게요.'이다.

④ 후배가 밤늦게 결과물을 보낸 경우: 이때는 후배가 노력하는 모습을 확실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후배도 이를 바라고 밤늦게 보냈을 확률이 높다. '늦게까지 작업해 줘서 고마워요.'라는 정형문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⑤ 금요일 저녁, 상사에게 메일을 보내고 퇴근하는 경우: 주말에는 상대로부터 답신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주말에 쉬고 싶다'는 바람을 담아 정형문을 '주말에 보고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로 시작해서 '이번 주도 많이 바쁘신 것 같던데 주말에는 꼭 쉬시길 바랍니다.'로 마무리한다.

이 모든 상황에서 중요한 원칙은 마음에도 없는 말은 절대로 쓰지 않는 것이다. 답신이 늦었다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보낸 메일에 '바로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답을 보낸다면 상대가 비꼰다는 생각이 들어 등골이 오싹해질지도 모른다.

답신은 새로운 것부터 하라

메일은 먼저 온 순서가 아니라 가장 최근에 온 것부터 답신하는 편이 유리하다.

첫 번째 까닭은 속도 이미지 전략 때문이다. 3시간 뒤에 답하든 5시간 뒤에 답하든 효과는 동일하다. 1시간 이내의 '신속한 답장'만 이 빠르다는 선명한 이미지를 심을 수 있다.

두 번째 까닭은 '신속한 답장'이 가장 간단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업무를 의뢰받았을 때 신속하게 답하면 '지시대로 하겠습니다.'로 간단히 끝난다. 하지만 답이 늦어지면 글의 첫머리부터 헤매기 시작한다. '답이 늦어서 죄송합니다.'라고 써야 할까, 아니면 '자리를 비우고 있었다.'고 써야 할까, 겨우 몇 시간밖에 안 늦었는지 그렇게 일일이 쓰면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을까 등으로 고민하기도 한다.

시간이 경과된 메일의 경우, 내용에 대한 기대치도 상승한다. 일을 의뢰했을 때 하루가 지나서 '지시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보내면 즉시 보낼 때와 문장은 같지만 왠지 성의 없고 투명스러워 보인다. 상사 처지에서 본다면 후배에게 무언가 부탁했을 때 '지시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신속하게 답장을 받으면 조금은 흐뭇하기도 하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후배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일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메일주소와 첨부파일은 한 번 더 확인하라

만회할 수 없는 실수 중 흔히 저지르는 대표적인 것이 메일주소를 헛갈려 잘못 보내거나 첨부파일을 빠뜨리는 것이다. 메일 프로그램은 점점 발달해서 이름 첫 글자를 타이핑하면 그에 해당하는 주소를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기능까지 있다. 그러나 이런 기능은 언뜻 보면 편리해 보이지만 실은 몹시 위험하다. 같은 머리글자라도 전혀 다른 사람의 주소가 표시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만일 기밀 내용이 담긴 메일을 엉뚱한 사람에게 보내기라도 한다면 그야말로 대참사라 할 수 있다.

가장 확실하게 실수를 피하려면 메일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주소를 표시해 주는 기능을 꺼두는 것이 좋다. 타이핑 실수를 막으려면 예전에 주고받은 메일을 클릭해 들어가 내용을 확인하고 주소를 복사하는 것이 더욱 확실하다. 수신자, 참조자, 첨부파일은 송신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한다. 깊은 밤 아무리 피곤해도, 아니 그럴 때일수록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다.



2017 강남, 점음의 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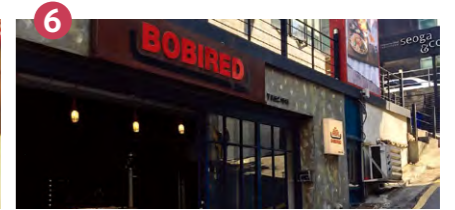
1 <더미트> 기차가 맥주를 배달해주는 가스트로펍
A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2길 19
T 02-557-1122



5 <405키친> 풍부한 육즙에 신선한 아채 '와규 수제 버거'
A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02길 31 1층
T 02-508-3405



2 <고요남> SNS를 강타한 강남역 맛집
A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2길 20
T 02-569-8889



6 <바비레드> 캐주얼 레스토랑에서 즐기는 색다른 매운 맛
A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6길 39
T 02-3452-1515



3 <호랑이식당> 강남역 언덕, 트렌디한 분위기에 깊은 맛
A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4길 20
T 02-508-6655



7 <그릴타이> 오픈주방, 불쇼와 함께 즐기는 스테이크
A 서울 강남대로102길 40
T 010-9332-3609



4 <갯섬커피> 강남인 듯 강남 아닌 강남 같은 카페
A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6길 30
T 070-4113-3619



8 <계절미각> 식재료가 소개된 퓨전 레스토랑
A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3길 18
T 070-8883-1586



동기들과 함께한 어느 멋진 저녁

‘맛’에 탐닉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맛집 정보도 홍수를 이룬다.
 몇 사람만 모여 앉어도 어느 식당의 무슨 음식이 맛있는지 정보가 줄줄 나온다.
 방송, 신문, 인터넷 할 것 없이 맛집들이 넘쳐난다.
 그중에서도 가장 믿을 만한 정보는 역시 ‘아는 사람’의 추천 아닐까?
 이번 호부터 사우들과 함께하는 리얼 100% 맛집 탐방을 시작한다.



고기로 뭉친 다섯 동기들

사보와 함께하는 첫 번째 맛집 탐방을 함께할 이들은 SBI저축은행을 대표하는 96년생 쥐띠 사우 5인방. 오늘 모임을 주선한 명동지점 하유리 사원을 비롯해 올림픽지점 이공주, 잠실지점 권지혜, 노원지점 장선희, 청담지점 백혜리 사원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2014년 12월 2일 함께 입사해 돈독한 정을 쌓아온 다섯 동기들은 약속장소로 강남을 첫 손가락에 꼽았다. 각자 다른 지점에서 근무하는 점을 고려해 교통이 편리하고 집에 돌아가기도 쉬운 장소로 공통분모를 찾아보니 강남만 한 곳이 없었던 것. 이들이 강남에서 고른 메뉴는 최근 SNS에 ‘인증샷’ 열풍을 일으킨 ‘고요남’이라는 식당이다. 한우육회초밥, 한우담밥, 고인돌갈비, 한우물회, 치즈떡갈비 등이 주요 메뉴로, 고깃집이지만 연기가 나지 않아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다. (40~41쪽 참조)

강남 한복판에서 만난 다섯 동기들은 그리 엄청 오랜만도 아닌데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은지 만나마자 ‘수다꽃’이 한창이다. 이들은 각자 어떤 계기로 SBI와 인연을 맺게 되었을까?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금융권에 취업하는 걸 꿈꿔왔어요. 저축은행 자산 규모 1위인 SBI저축은행의 채용공고가 뜬 것을 보고 바로 지원했죠.” (권지혜 사원)



“저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희망 웹진을 보고 지원을 결심했어요. 회사 분위기가 가족처럼 즐거워 보였거든요.” (장선희 사원)

“저축은행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지만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입사를 결심했습니다.” (하유리 사원)

“저는 어릴 때부터 은행원이 되고 싶었어요. 업계 1위 회사에서 공고가 나온 것을 보고 바로 지원하게 됐죠.” (이공주 사원)

“SBI저축은행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보면서 참 따뜻한 회사라고 느꼈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일하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백혜리 사원)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은 꼭

수다꽃이 한창인 가운데 드디어 주문한 메뉴가 테이블을 가득 채웠다. 이 가운데 일행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은 메뉴는 길이 55cm에 이르는 기다란 나무그릇에 나오는 한우육회초밥. 육회비빔밥을 초밥 형식으로 만든 이곳만의 야심찬 메뉴로 밥, 갯잎, 육회 순으로 만든 초밥 아닌 초밥을 약고추장과 함께 먹는 음식이다. 촉촉한 윤기에 적당한 눈꽃 같은 지방층을 밥과 함께 한입에 씹! 그야말로 여심을 저격하는 맛이다.

한우육회초밥이 ‘눈맛’을 먼저 사로잡았다면 그 뒤를 이어 본격적으로 ‘입맛’을 사로잡은 메뉴는 치즈떡갈비였다. 달짝지근하면서 육즙 가득한 떡갈비에 마늘칩과 고소한 치즈가 어우러져 젓가락질을 멈출 수 없게 만들었다. 한잔씩 가볍게 곁들인 맥주



안주로도 매우 잘 어울렸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워낙 인기가 많은 식당이다 보니 손님들이 많아 분위기가 너무 시끌벅적하고, 이른 저녁시간에도 대기가 있어 제 시간에 음식을 맛보려면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한다는 것.

“치즈떡갈비가 가장 맛있었어요. 옆 테이블 사진기자님 것까지 몰래 먹은 건 안 비밀입니다. 호호.” (권지혜 사원)

“달달하면서도 담백한 한우육회초밥이 정말 일품이었어요. 저의 숟가락 점수는 4개입니다.” (장선희 사원)

“간이 적당하고 식감이 부드러운 한우육회초밥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시끄러운 분위기만 아니라면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백혜리 사원)

“저는 원래 육회를 좋아하지 않는데, 이곳 육회초밥은 버리지 않아서 제 입에도 잘 맛있어요. 저희 동네에도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이공주 사원)

“떡을 베이스로 양념된 갈비살에 치즈 토핑으로 ‘단짠’의 조화가 완벽했던 치즈떡갈비가 가장 좋았어요. 나중에 남자친구랑 다시 한번 오고 싶어요.” (하유리 사원)

어느덧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오는 길에도 다섯 동기들의 수다꽃은 여전히 한창이다. 긴 머리를 자를까 말까, 다이어트에는 무슨 운동이 좋을까, 다음 휴가에 여행은 어디로 갈까, 회사생활을 위해 자격증은 어떤 것을 따면 좋을까……. 대화는 끝이 없어진다. 그 와중에 이구동성으로 입을 맞춘 건 이 한마디.

“얘들아,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꼭 만나서 오늘처럼 맛있는 거 먹으면서 스트레스 풀자!”

TALK! TALK!
동기가 동기에게



명동지점 하유리 사원

밤 10시만 되면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 신데렐라 유리아, 업무에서 배울 점 많은 너를 우리는 모두 닮고 싶단다!



올림픽지점 이공주 사원

틈만 나면 잠잘 궁리만 하는 너는 진정한 잠자는 숲속의 공주! 예쁘고 도도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마음 여린 순수하고 착한 우리 공주!



잠실지점 권지혜 사원

얼음처럼 차가운 열사? 표정변화 없는 복면가왕? 우리는 너의 따뜻한 마음을 알고 있단다. 앞으로 꼭 함께할 거지?



노원지점 장선희 사원

조곤조곤 여성스러운 말투인 너는 혹시 전생에 포카혼타스 공주? 힘든 일도 늘 묵묵히 해내는 네가 우리는 언제나 믿음직해!



청담지점 백혜리 사원

환하게 웃는 모습이 예쁜 치아미인 헤리아, 우리 모임에서 너 없으면 분위기 안 사는 거 알지?

2017년 봄, 심심할 틈이 없어라

축제의 계절, 봄이다. 벚꽃 축제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철쭉 축제와 튤립 축제가 바통을 이어받았고, 장미 축제와 해바라기 축제도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어디 꽃뿐이라. 치맥 축제, 자전거 축제, 마임 축제 등 주제도 볼거리도 다양한 각종 축제들로 2017년 봄은 심심할 틈이 없다.

☑ 태안 세계튤립축제

2017 태안 세계튤립축제는 '튤립! 세계를 담다'라는 주제로 대지 위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튤립으로 그려진다. 특히 이번 축제는 수선화와 백합까지 대량 식재되어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일시 | 4월 13일~5월 10일

장소 | 충남 태안군 남면 마검포길 200

☑ 함평나비대축제

1999년부터 함평의 대자연 속에 살아 있는 나비와 자연을 소재로 펼쳐지고 있는 생태 학습 축제. 10만 평의 유채꽃과 24만 평의 자운영꽃이 수만 마리의 나비와 어울려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을 접할 수 있다.

일시 | 4월 28일~5월 7일

장소 | 전남 함평군 함평읍 곤재로 27

☑ 수원연극축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우리나라 대표 공연 예술제. 21회째를 맞이한 올해는 '우리 가족이 주인공 되는 축제', '가족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화려하고 풍성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일시 | 5월 5일~7일

장소 | 수원 화성행궁 광장, 수원SK아트리움 등

☑ 고양 국제꽃박람회

1997년 첫 개최된 이후 작년까지 620만 명이 다녀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화훼 박람회. 올해는 25개국 300여 개의 화훼 관련기관, 단체, 업체가 참가해 각국의 화훼류와 화훼 신상품을 선보이며 희귀 식물전시, 화훼 조형 예술 등 다채로운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일시 | 4월 28일~5월 14일

장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 호수공원 일원

☑ 춘천마임축제

영국 런던마임축제, 프랑스 미모스마임축제와 함께 세계 3대 마임축제로 꼽히는 춘천마임축제가 호반의 도시 춘천 곳곳에서 펼쳐진다. 해외 7개국과 10개 단체 및 국내 500여명 아티스트들이 참여한다.

일시 | 5월 21일~28일

장소 | KT&G상상마당 춘천, 중앙로, 수변공원 등

☑ 화성 뱃놀이축제

삼국시대 해양 실�크로드 교역 중심지인 전곡항에서 개최되는 축제. 요트, 보트, 크루즈 승선 체험과 카약, 도넛보트 등 수상레저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맨손물고기잡기, 어린이낚시대회, 워터슬라이드 등 다양한 육상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일시 | 6월 1일~4일

장소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로 21

🔍 다른 그림 찾기

두 사진에서 서로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보세요!



1. 서로 다른 곳을 찾아 위쪽 사진에 표시한 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세요.
2. 6월 2일(금)까지 홍보부 여성한 대리(ysh@sbsib.co.kr)에게 답을 보내 주세요.
3. 정답을 보내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다섯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